

지역 매아리

김제보건소, 12월3일~7일까지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김제시보건소(보건소장 김형희)는 오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2019년도 상반기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부(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제공으로 태어난데부터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로 사업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보건소 영양상담실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양평가 실시 후 영양위험 판정을 받으면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번 신규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6개월간) 수혜를 받게 되며 쌀, 콩, 감자, 당근, 달걀 등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강식품을 패키지로 제공받게 되며 동시에 월 1회씩 영양교육도 받는다. 김제시보건소는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이 균형잡힌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 읍·면·동 공공비축미곡 매입현장 방문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산동을 시작으로 각 읍면동의 공공비축미곡 매입현장을 찾아 농민들을 격려하고 최근 쌀값 동향과 지역 농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농업인들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다.

올해 김제시의 공공비축미곡 배정물량은 1만2,880톤으로 산물벼는 지난 11월 16일까지 3,271톤 매입 완료되었고, 포대벼 9,609톤은 12월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품종은 신동진, 새일미로 매입대금 지급은 농가가 수매한 달에 중간 정산금 3만원을 먼저 지급한 후 12월 말에 매입가격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행정기관과 농업 등 매입 관계자들에게 출하 농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폐기물 매립설치 백지화 촉구

완주군, 테크노밸리 2차 산업단지 지정폐기물 매립설치관련 주민대책위 결의대회 가져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 2차 산업단지 지정폐기물 매립설치와 관련,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있다.

지난 23일 설치 반대를 위한 주민(주민대책위원장 권오석)들 100여명은 완주청앞에서 완주군수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책위는 "봉동주민들과 함께 주민의 뜻을 모아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완주군수 박성일을 주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자 한다"면서 "완주군수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제네리 건설폐기물처리장·구암리레미콘공장 이전 및 설치와 관련하여 더 이상 주민들을 우롱하고, 기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라도 주민들께 사죄하고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완주군수는 더 이상 거짓된 내용으로 주민을 분열시키지 말고, 폐기물매립 시설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산업단지 밖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주민들에게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지난 23일 설치 반대를 위한 주민들 100여명은 완주군청 앞에서 완주군수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밝혔다. 또한 그들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않고, 법에서 보장한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토로했다. 이와함께 대책위는 "주민들의 뜻으

로 결의한 위 내용을 끝까지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즉각 완주군수 퇴진 운동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주민들에 지엄한 뜻을 행동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경천면 오복마을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완주군, 육성사업 마무리 준공식 가져

완주군(군수 박성일) 경천면 오복마을이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거듭난다.

지난 23일 완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추진해 온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오복 농촌관광 거점마을은 도시민 힐링을 위한 먹거리, 체험거리가 가득한 농촌 대표관광지로 조성돼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서게 됐다.

숙박 150명, 식사 120명, 회의실 150명 규모의 시설을 갖췄으며, 신선하고 안전한 완주 로컬푸드와 함께 편백나무 산책, 강릉열차 운행, 미꾸라지 잡기, 물고기 낚시 체험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특히 경천면 오복마을은 국도 17호선 옆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에는 경천저수지 및 대둔산 도립공원, 1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천주교 성지인 비봉 천호성지 등이 있어 이곳과 연계한 1일 관광코스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완주군은 사단법인 대한민국의향사(회장 임용수)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코미디언 작품활동 및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창작을 위한 코미디언 인큐베이팅 시설(2층, 연면적 362㎡)도 신축했다.

이를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선도적인 농촌관광 모델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으뜸가는 마을사업 역량을 가지고 농촌관광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준공식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화합하고 상생하며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김복남 의원 "소각장 설치 등 쓰레기 문제 해결 근본대책 마련"

김영재(가선거구) 의원 "지방재정법상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필요"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는 지난 22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의원들은 기획감사실, 투자유치과, 행정지원과, 환경과 등 4개부서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시종일관 날카로운 질문으로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김복남 의원은 전주소각장 문제로 재활용선별장의 쓰레기가 적체되어 대란이 우려되므로 자체 소각장 설치 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청한데 이어 정규직 전환 보류 비정규직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김영재(가선거구) 의원은 2018년 예산에 재난재해 목적 대비 예비비가 김제시 재난발생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 편성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의 소중한 재정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상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합리적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오상민 의원은 모악산 상생평화문화축제는 종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종교계와 충분히 논의하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지역경제는 일회성 축제가 아닌 365일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한데 이어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생활다양성관리 계약사업의 피해보상 지역을 까마귀 피해가 심각한 동부지역까지 확대시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노규석 의원은 김제시 청년 인구 연평균 감소율이 불명예스럽게도 도내 1위라고 지적한 산단 조성의 목적에 맞게 산단 내 입주업체와 협력하여 김제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일자리를 창출에 최선을 기울일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서백현 의원은 공약사업 중 하나인 인사 7.0의 격무부서 근무자 인센티브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물은 뒤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단행한 전보 제한자 인사는 시장의 인사행포이자 코드 인사라고 말하며 직원의 불만을 야기하는 인사가 민선7기 김제시의 인사점의 7.0이나고 비판했다.

박두기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이 없는 상당수의 2019년 추진공약사업을 감사 자료로 제출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수감행태를 지적한데 이어 귀농자·감소농 육성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축산업 관련 귀농인원이 타 시·군으로 유출되지 않고 김제에 귀농할 수 있도록 축산지원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진우 의원은 새만금개발 청사 유치와 관련 타 시군의 사활을 건 유치 노력에 비해 김제시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고 비판하며 김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고 이어 무허가축사 양성화사업 추진 시 양성화가 안 되는 축사까지 양성화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고산면의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에서 꽃차 만들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완주 귀농귀촌인, 주민위한 꽃차 만들기 교육

완주군 귀농귀촌인이 주민들을 위해 꽃차 만들기 교육을 실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완주군은 고산면의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에서 꽃차 만들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진행되는 교육은 비봉면 백도리 원백도 마을에 2017년도에 귀촌한 민속미씨가 강사로 나서 '꽃차 소믈리에'를 주제로 주민들에게 꽃차 만들기 기초과정을 6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민 씨는 꽃차 소개와 만드는 방법, 뒤음의 마무리과정 등 제다에 필요한

기구소개 과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본인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다. 참여하는 수강생들은 "꽃과 관련된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교육을 받게 돼 너무 좋았다"며 "귀농귀촌인들의 다양한 재능을 살려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도에는 더욱 다양한 지원과 교육, 주민과의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